

2025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16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

성경: 엡 6:24, 계 2:4-5,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골 1: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¹⁵⁾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 73:25-26]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²⁶⁾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뭉이십니다.

I.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부패함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 엡 6:24, 5:25-27.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5:25-27]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²⁶⁾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²⁷⁾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A. 바울의 글에 있는 ‘부패함 없이’라는 단어의 용법에 따르면,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가리킨다. 모든 천연적인 것들은 부패하지만, 신성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지 않는다 — 딤후 1:17, 딤후 1:10, 고전 15:42, 52-54.

[딤후 1: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도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딤후 1: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고전 15:42]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져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고전 15:52-54]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⁵³⁾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⁵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때에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B.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이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 옛 창조물 안에서가 아니라, 새 창조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엡 2:15, 6:24, 고후 5:17.

[엡 2: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C.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나고 새롭게 된 영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요 3:6, 고전 6:17, 딤후 1:7.

[요 3: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딤후 1: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D.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계시된 부패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에베소서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분배와 (엡 1:3-23, 3:16-21), 그리스도의 존재와 교회를 위해 하신 일들의 분배와 (엡 1:7, 2:13-18, 5:25-27, 29),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엡 1:22-23, 5:23, 25-27, 2:6)에 대하여 말한다.

[엡 1:3-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 하셨습니다. ⁽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⁵⁾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⁶⁾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⁷⁾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⁸⁾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⁹⁾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¹⁰⁾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¹¹⁾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¹²⁾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¹³⁾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¹⁴⁾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¹⁵⁾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¹⁶⁾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¹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¹⁸⁾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

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¹⁹⁾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²⁰⁾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²¹⁾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²²⁾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3:16-21]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⁰⁾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²¹⁾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엡 1: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엡 2:13-18]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¹⁴⁾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¹⁵⁾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¹⁶⁾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시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들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¹⁷⁾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¹⁸⁾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엡 5:25-27]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²⁶⁾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²⁷⁾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5:29]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피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5:23]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엡 2: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2. 이 모든 것들은 부패하지 않는 것들이며,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패하지 않는 사랑이 될 것이다(엡 6:24). 이와 같은 사랑은 천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사랑, 곧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의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인 사랑이다(요일 4:8, 16).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E. 에베소 교회는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을 버렸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계 2:4-5, 골 1:18 하, 시 27:4, 수 9:14, 대하 20:12-13). 그와 같은 실패는 모든 시대들에 걸쳐 교회가 실패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계 2:1-7, 마 24:12, 막 12:30-31, 비교 단 7:25).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¹⁾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골 1: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수 9:14]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받았으나 여호와와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대하 20:12-13] 오, 저희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저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와 맞설 힘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해, 저희 눈이 다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¹³⁾ 온 유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계 2:1-7]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²⁾ 내가 너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안다. ⁽³⁾ 또한 네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 내었고, 지치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 ⁽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⁶⁾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네가 니콜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⁷⁾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마 24:12]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막 12:30-31]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³¹⁾ 둘째가는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단 7:25]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1. 참된 신약 사역은 항상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순히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강화하여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킨다 — 고후 11:2-3, 3:3-6.

[고후 11:2-3]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³⁾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고후 3:3-6]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⁵⁾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⁶⁾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에서 돌아섰다 (엡 6:24, 딤후 1:15, 고후 11:2-3).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쓴 때로부터 약 26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을 잃었으며, 주님의 증거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 2:4-5, 7).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딤후 1:15] 그대도 아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고후 11:2-3]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⁵⁾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 II. 주 예수님을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 가장 좋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함으로써, 주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으뜸의 자리, 첫째 자리를 드리는 것이다 — 계 2:4,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계 2: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골 1: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¹⁵⁾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 73:25-26]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²⁶⁾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시 80:17-19]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¹⁸⁾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¹⁹⁾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 A.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된다. 사랑 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과 합당한 관계 안에 지킬 수 없다 — 빌 3:8, 마 26:6-13, 엡 3:16-19, 6:24, 계 2:4-5, 비교 3:20.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마 26:6-13]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⁷⁾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⁸⁾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⁹⁾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니, ⁽¹⁰⁾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11)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¹³⁾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엡 3:16-19]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계 3: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B.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회개하고 첫째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일은 첫째가는 사랑에서 나온 일이다 — 계 2:5, 살전 1:3, 고후 4:5.

[계 2: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살전 1:3]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1. 아가서에서 우리 위에 나부끼는 주님의 깃발은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 우리의 좌우명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근거함을 의미한다. 아가서에서 추구하는 이가 또한 ‘사랑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요’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소진될 정도로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함을 의미한다 — 아 2:4-5.

[아 2:4-5]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니 /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이 깃발은 사랑이었지요. ⁽⁵⁾ 건포도 과자로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 사과로 나를 신선하게 해 주세요. / 나 사랑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요.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위에 나부끼는 깃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항상 넉넉히 이기는 이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전람한다 — 롬 8:31-39.

[롬 8:31-39]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³²⁾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³³⁾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³⁴⁾ 누가 감히 유죄판결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³⁵⁾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³⁶⁾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저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³⁷⁾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³⁸⁾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³⁹⁾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랑을 갖는다.

4.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첫째가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증거를 잃을 것이며,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C.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사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 아 1:1-4.

[아 1:1-4] 솔로몬의 아가. ⁽²⁾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³⁾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 — /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D.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매일 아침 부흥을 하는 생활을 사는 것, 곧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 그리스도를 만족시켜드리고 (시 110:3),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갖게 되어 지친 사람들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되고 (사 50:4-5),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것이다 (막 1:35).

[시 110:3] 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사 50:4-5]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⁶⁾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 돌아서지도 않았다.

[막 1:35]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외딴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E.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매일 헌신하는 생활을 사는 것, 곧 하나님께 온전히 분별되고,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으로 적셔진 오늘날의 나실인들이 되는 것이다 — 시 110:3, 민 6:1-9, 22-27.

[시 110:3] 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민 6: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고자 할 때에는 ⁽³⁾ 포도주와 독한 술에서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 그는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⁴⁾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⁵⁾ 자신을 분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날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⁶⁾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⁷⁾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분별된 표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⁸⁾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에게 거룩하다. ⁽⁹⁾ 만일 곁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죽어, 분별된 머리를 더럽히게 된 경우에는 정결하게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한다. 곧 칠 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한다.

[민 6:22-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³⁾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²⁴⁾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²⁵⁾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²⁶⁾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²⁷⁾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F.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사는 것이다 — 삼상 12:23, 마 6:6, 14:22-23, 단 6:10, 2:17-18, 뎁전 2:1, 뎁후 1:3, 살전 5:17.

[삼상 12:23] 물론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마 6: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마 14:22-23]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²³⁾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단 6:10]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단 2:17-18] 그런 다음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동반자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정을 알려, ⁽¹⁸⁾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바빌론의 남은 현인들과 함께 죽는 일이 없도록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게 하였다.

[뎁전 2:1]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뎁후 1:3]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전 5: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G.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읊조리는 것이다 — 시 119:11, 14-15, 23, 48, 72, 78, 97, 99, 111, 113, 119, 127, 140, 147-148, 159, 162-163, 165, 167.

[시 119:11] 저는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시 119:14-15] 모든 재물을 기뻐하듯 / 주님의 증거들의 길을 기뻐하였습니다. ⁽¹⁵⁾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시 119:23] 통치자들도 앉아서 저를 비방하나 / 이 종은 주님의 율례들을 읊조렸습니다.

[시 119:48]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향해 제 손을 들고 / 주님의 율례들을 읊조리렵니다.

[시 119:72] 주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은 제게 / 금과 은 수천 닢보다 낫습니다.

[시 119:78] 교만한 이들은 거짓말로 제 송사를 뒤엎으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 그러나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렵니다.

[시 119:97] n(멤) / 오, 제가 주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 저는 온종일 그것을 읊조립니다.

[시 119:99] 제가 제 모든 스승보다 더 통찰력 깊음은 / 주님의 증거들을 읊조리는 까닭입니다.

[시 119:111] 주님의 증거들이 제 영원한 유산인 것은 / 그것들이 제 마음의 즐거움인 까닭입니다.

[시 119:113] o(사메크) / 저는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은 미워하나 / 주님의 율법은 사랑합니다.

[시 119:119] 주님께서 땅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없애시기에 / 저는 주님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시 119:127] 그러하기에 저는 주님의 계명들을 / 금보다 더, 참으로 정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시 119:140]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순수하니 / 이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시 119:147-148] 저는 새벽을 고대하며 부르짖고 / 주님의 말씀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¹⁴⁸⁾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자 / 제 눈은 야간 파수 때를 고대하였습니다.

[시 119:159] 제가 얼마나 주님의 법도들을 사랑하였는지 살펴 주십시오. / 오, 여호와님! 주님의 자애에 따라 저를 살어나게 해 주십시오.

[시 119:162-163] 많은 전리품을 얻은 이처럼 / 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¹⁶³⁾ 저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나 / 주님의 율법은 사랑합니다.

[시 119:165]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 그들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 119:167] 제 혼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고 / 저는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H.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임재에 의해 직접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 출 33:11, 14, 13:21-22, 고후 2:10.

[출 33:11] 여호와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출 33: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출 13:21-22]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²²⁾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I.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 엡 5:25, 고후 12:15, 고전 16:24.

[엡 5: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고후 12: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고전 16: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J.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다 — 고후 8:5, 요일 1:3, 엡 4:11-12.

[고후 8:5]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엡 4:11-12]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¹²⁾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K.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 곧 그 영으로 봉사하고 그 영을 공급하는 것이다 — 갈 5:25, 빌 3:3, 고후 3:6, 슄 4:6, 샷 9:9, 비교 삼상 2:30 하.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 4:6]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샷 9:9]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기름을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오?’

[삼상 2:30]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포한다. 내가 너의 집안과 너의 조상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선포한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L.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의도는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어,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 그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의 증가, 하나님의 확대인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이다 — 렘 2:13, 요 4:14 하.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 나를 저버렸고 /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요 4: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M.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 — 계 2:7.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N.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접촉하고, 취하고, 받아들이고, 맛보고,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 사 57:20, 각주 1.

[사 57:20]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 가만있지 못하니 / 그 물결이 개흙과 진흙만 밀어 올린다.

각주 1.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비교 사 55:1-2).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O.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중심(우리를 붙드는 중심)과 우리의 전부(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과 내용과 돌레로 취해야 한다 — 골 1:17 하, 18 하.

[골 1:17-18]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¹⁸⁾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P.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열망하고 큰 뜻을 품는 것이다 — 고후 5:9, 골 1:10, 히 11:5-6.

[고후 5:9]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골 1:10]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히 11:5-6]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Q.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청옥 보좌가 그 위에 있는, 두려운 수정 같은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곧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시는 임재가 있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겔 1:22, 26.

[겔 1:22]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겔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R.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긴밀한 연결 안에 머물며 주님을 다스리시는 분이자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게 함으로써 주님을 머리로 취하는 것이다 — 골 2:19.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S.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과 일의 모든 세세한 일들에 있어서 여호와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 수 9:14, 뵈 4:6-7.

[수 9:14]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받았으나 여호와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뵈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⁷⁾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T.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의 흐름, 곧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흐름에 으뜸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 흐르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신다 — 겔 47:1, 계 22:1-2.

[겔 47:1] 그분은 다시 집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집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내려 갔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U.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님, 저를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하십시오. 절대로 제가 이기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를 패배시키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의 안식을 주의하며,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와 통치와 지시와 인도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다 — 고후 2:13-14.

[고후 2:13-14]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¹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V.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첫째가는 자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일이다 — 시 22:3, 119:164, 34:1.

[시 22:3]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시 119:164]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하여 / 저는 하루 일곱 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 34:1] 나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서 그치지 않으리라.